

청년과 중년의 가족 개념 비교분석*

Comparison of Family Concept between Young and Middle-Aged Adults*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이영숙

인제대학교 가족·소비자학과

교수 박경란

Faculty of Human Ecology, Kunsan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Yi, Yeong sug

Dept.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Inje University

Professor : Park, Kyung Rhan

◀ 목 차 ▶

I. 문제의 제기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결과 및 해석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article explored the perceptions of 'family' and the factors related to respondents' definitions of a famil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wo types of people: one was 472 university students and high school students' parents who were asked whether or not each of 22 scenarios represented a 'family', and the other was 40 young and middle-aged adults who were asked, "what is a family member?".

Results showed that (1)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respondents considered a married couple without a child(scenario #5) as a family and the least respondents agreed a divorced couple(scenario #18) as a family, (2) the majority perceived consanguinity, co-residence, parental status, and marital status to be important in the definition of a family, (3) middle-aged adults were more likely than young generation to agree that consanguinity and paternal relations were important in determining what a family member is.

주제어(Key Words): 가족개념(family concept), 혈연성(consanguinity), 공동거주(co-residence), 결혼지위(marital status), 부모지위(parental status)

*이 논문은 2001년도 군산대학교 자체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I. 문제의 제기

오늘날 정보화의 등장으로 우리 사회의 경제구조와 사회조직은 새로운 적응형태로 변화되고 있으며, 삶의 방식 역시 전통적인 틀을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변형되고 있다(김영석, 1995). 이러한 사회적 전환기에서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단언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족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흐름밖에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가족가치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나갈 것이다(Wright & Jagger, 1999).

이러한 측면에서 가족학자들은 현대가족의 구조는 이전보다 복잡·다양하며(Allen & Baber, 1992; Cowan et al., 1993) 미래에는 가족에 대한 개념이 훨씬 더 복잡하고 논쟁적이 될 것이라고(Benokraitis, 1999) 예상한다. 다시 말해서 정보화 사회에서는 산업사회의 획일주의에서 다원주의로 가치관이 바뀌어 이전보다 가족유형이나 가족관계를 선택하는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본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지난 20~30년간에 걸쳐 가족유형의 다양화가 이루어져 왔으며(박경란 등, 2001), 가족의 범위를 전통적인 원리에서 벗어나서 인식하려는 경향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김규원, 1995).

개인이 가족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시각으로 이해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동시에 한 개인이 생각하는 가족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가족이 어떻게 다른가를 구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가족은 그 구성원들에게 사회라는 의미를 가장 먼저 제공하는 사회화 기관이므로,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족 그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일은 그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가치관을 파악하는 단서를 제공한다(김규원, 1995). 더욱이 오늘날과 같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가족개념에 대한 고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족개념은 사회·경제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Fine, 1993). Hartman과 Laird (1987)가 지적한 바와 같이, 가족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는 정부기관이나 지역사회 등의 가족정책 및 서비스 결정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개인의 가족생활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날 사람들이 가족을 어떻게 인지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가족구조가 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가족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에 대해 좀 더 알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무엇이 가족인가"에 대한 정의는 실제적인 가족구조보다 더욱 중요하다(Powell et al., 1981).

이에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족에 대하여 어떤 개념적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사회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가족구조적 측면에서 가족개념을 양적, 질적으로 조사해 볼 것이다. 가족구조적 관점에서의 가족개념은 누구를 가족으로 보는가에 대한 가족성원 규정의 측면에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원이 누구인지를 명백히 알지만, 가족을 정의할 때 "누가" 가족성원으로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Trost, 1990). 개인은 가족에 대해 다양한 개념화를 가질 수 있으며, 또한 가족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명백히 정의를 내리는 사람의 가치와 관련된다(Levin & Trost, 1992).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연구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 첫째, 청년과 중년의 가족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어떠한가?
- 둘째, 청년과 중년의 가족개념 인식에는 차이가 있는가?
- 셋째, 청년과 중년의 가족개념 인식에 관련되는 요인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가족개념의 변화

가족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하고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꾸준히 제시되어 왔다. 전

통적인 시각에서 가족은 전형적으로 법적, 생물학적 유대, 그리고 동거의 면에서 정의되었다. 즉 '가족'은 남편과 부인, 그리고 그 자녀로 구성된 단위를 의미한다. 이 단위는 결혼 및 생물학적 부모됨에 기초한 집단으로, 주거를 같이 하는 집단으로, 그리고 정의적 유대, 보호와 지원의 의무, 공통의 정체감으로 통합된 것으로 널리 해석된다(Elliot, 1993).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입장의 가족개념은 과거에는 적합한 것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여러 면에서 부적합하다는 지적들이 증가하고 있다(Shehan & Kammeyer, 1997). 학자들은 현 시점에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는 개인, 정부, 법 및 정책결정자, 그리고 법 집행자에 의해 상충될 것이므로(Peters, 1999), 가족에 대한 다개념이 타당하며(Eichler, 1990; Peters, 1999 재인용), 오늘날 가족이나 결혼의 정의를 확대시키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보다 상세하게 Peters(1999)는 첫째, 오늘날 많은 가족이 역기능적이며 둘째, 가족생활의 사적 측면이 축소되고 공적으로 되어가고 있으며 셋째, 가족의 권력구조가 급격히 변화되고 있으며 넷째, 가족경험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다섯째, 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바뀌고 있으며 여섯째, 가정 밖(특히 직장)에서 성인남녀간의 접촉과 상호작용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일곱째, 가족에 대한 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가족집단의 권리 또는 복지 이상으로 개인의 복지, 권리를 강조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전통적 가족개념은 이제 더 이상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Gubrium과 Holstein(1990)은 가족을 정의하는데 있어 '가족(the family)'이라는 낡은 개념을 '가족들(families)'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대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Marciano & Sussman(1991)은 자녀, 파트너 또는 자매에 대해 전통적 인식의 제한이 없는 'wider families'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Rapoport(1989)는 가족은 다원적이며 많은 대안을 갖는다는 점에서 '다양성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Peters, J. F.(1999), Stacey(1990) 등은 'postmodern family'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고전적 의미의 핵가족의 비

율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편부 또는 편모가족, 노인가족, 일인가구, 무자녀가족, 동거가구, 비동거가족, 공동체가족, 동성가족 등의 비전통적 가족형태가 조금씩이나마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손승영, 1995; 장현섭, 1995). 또한 세대간 위계질서에 기초한 부계혈통 혈연중심의 가족간 연대가 강조된(최재석, 1975) 전통적 가족형태에서 미미한 정도이기는 하나 새로운 형태의 가족구성에 대한 수용정도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김규원, 1995).

2. 성별, 세대별 비교

우선, 남녀별로 보면, 여학생의 경우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나 문화적 공감대를 나누는 사람들을 강조하는 가족정의를 지지하는 반면, 남학생의 경우 피를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개념을 더 중시하였다. 가족정의를 대한 동의정도에서도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혈통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옥경, 2001). Ford(1994)의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라 몇 가지 차이가 발견되는데,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자녀가 없는 결혼부부, 동거부부(자녀유무에 관계없이), 이혼 및 편부모, 그리고 확대가족(조부모와 가장 친한 친구를 포함하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이에 대해 Ford는 첫째, 여성들은 이혼가족, 편모가족과 같은 다양한 가족구조 내에 가장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더 많이 발견하며 둘째, 여성들은 그들이 취업을 했다고 할지라도 남성들보다 자녀를 돌보고 가정을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세대별 비교(김규원, 1995)에서는 자녀세대가 부모세대에 비해 혈연과 부계를 중심으로 가족이 구성된다는 인식이 비교적 적었으며, 가족원의 동일 거주성에 대하여 그 현실적 어려움을 더 많이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혼인 부부와 무혈연 가구의 가족형태에 대해서도 자녀 세대에서 수용하는 태도가 더 강하게 나타났는데, 장현섭(1995)은 이혼 및 재혼, 그리고 사고사 등으로 인한 결손가족의 증가추세로 인해 비혈연 가족관계의 성

립가능성이 나이 어린 세대들에게 더욱 현실적으로 높아간다고 하였다. 반면 동일 가계성에 있어서는 부모세대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경향을 보였다.

3. 가족성원의 기준

개인들은 가족성원으로 누가 포함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해 상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명백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들은 가족을 ① 가족성원 ② 가족기능 ③ 지도(guidance) ④ 공동거주 ⑤ 생물학적 ⑥ 정서적 ⑦ 법적 ⑧ 사회적 역할 요인 등 8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이중 가장 뚜렷한 영역은 "가족성원" "생물학적" "가족기능" "지도"인 것으로 나타났다(Powell et al., 1981).

오스트레리아인들은 가족이 되는 집단으로 부부는 서로 결혼해야만 하며, 자녀를 가져야만 하며, 같은 지붕아래 살아야만 하며, 다른 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서로에게 관련되어져야만 한다는 기준을 가졌다(Sarantakos, 1996). Ford(1994)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이 전통적인 핵가족 단위가 진정한 가족이라는데 동의하는 경향이었으며, 그리고 결혼상태(이혼, 결혼, 동거)에 상관없이 자녀(부모)를 가진 사람을 가족으로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명백하게 만약 부부들이 동거하고 있지만 자녀가 없거나, 동성들이거나, 성인친구를 포함하는 경우라면 응답자의 대다수는 가족을 구성하는 조건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일반적으로 조사에서 제시된 대안구조들을 가족으로 고려하는 경향이었지만, 반면 그들은 부부들이 이성이며, 자녀가 있으며, 결혼을 하였다면 더 가족으로 고려하는 경향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Powell 등(1981)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우리 나라 대학생들은 가족이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라고 정의한 것이 가장 높았으며(53.9%), 그 다음으로 피를 나누는 사람들(20.6%), 운명공동체(13.3%)로 정의하였다. 가족범위 면에서 보면, 부모와 형제자매로 한정된 경우가 47.1%로 가장 많았으

며, 반면 극소수이기는 하나 애완동물, 또는 '아끼는 물건'과 같이 사람이나 생명체가 아닌 것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었다(양옥경, 2001). 김규원(1995)의 연구에서는 가족구성기준으로서 혈연성(73.6%), 동일거주성(58.4%), 부계성(51.5%), 동일가계성(43.0%)의 순으로 중시하였으며, 반면 동성애부부(6.7%), 무혈연가구(33.2%), 비혼인부부(34.4%)에 대한 동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둘로 나뉜다. 첫째, 가족에 대한 주관식 질문의 대상은 전북과 경남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년과 중년 각 40명이며, 둘째, 가족에 대한 객관식 질문의 대상은 전북과 경남 소재 두 대학교의 가족관련 강좌를 수강한 대학생 250명(청년)과 고등학생의 부모 250명(중년)이다.

주관식 질문조사는 2001년 9. 12-10. 30일 사이에 조사의 목적을 설명한 뒤 질문지에 대상자가 직접 기재하도록 하고 직접 기재가 곤란한 경우는 조사자가 대신 기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객관식 질문조사는 대학생에게는 질문지를 직접 배부하여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학부모에게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부실 기재한 것을 제외하고 472부(남성 청년과 중년 각 125부, 여성 청년과 중년 각 111부로서 남성은 250부, 여성은 222부임)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주관식 조사에서 청년(남녀 각 20명)은 19~27세로 평균연령은 20.32세이며, 중년(남녀 각 20명)은 40-58세로 평균연령은 47.65세이었다. 객관식 조사에서 청년층은 18~27세로 평균 연령은 20.45세이며 중년은 40-59세로 평균연령은 47.14세이었다. 부모와 자녀로만 구성된 핵가족이 385명(81.5%), 핵가족 이외 가족이 87명(18.5%)이었고, 중년은 배우자와 함께 사는 가족이 229명(97%), 기타 배우자가 없는 가족이 7명(3%)이었다.

2.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두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첫째는 '가족원에는 누구누구가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자유롭게 답하도록 한 개방형 질문 지이며, 둘째는 Levin & Trost(1992)가 사용한 질문을 참고로 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연구자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한 질문지이다. 척도는 독신, 공동체 가족, 동거, 재혼, 이혼, 별거 등 다양한 구조를 가진 가족을 표현하는 2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에 '그렇다'와 '아니다'로 대답하도록 되어있다 (cronbach's $\alpha = .65$). 결과 분석은 주관식 질문은 내용분석 하였고, 객관식 질문 중 가족개념에 대한 인식과 청년과 중년의 인식 차이는 빈도, 백분율, χ^2 으로 분석하였고, 가족개념 인식의 관련요인은 평균,

표준편차, t검증을 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가족 개념에 대한 인식

<표 1>에서 보듯이 전체 문항 중 자녀가 없는 부부(문항 5)를 가족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가장 많아(97.7%)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결혼한 부부를 가족이라고 하는 인식은 일반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90% 이상의 응답자가 친조부모와 함께 사는 손자(문항 13), 입양한 딸과 독신 남(문항 15), 함께 사는 미혼 세 자매(문항 10)도 가족이라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를 가진 부부로 구성되는 핵

<표 1> 가족개념 인식

		N(%)	
문	항	전	순
		체	위
1	재혼모와 따로 사는 딸	355(75.2)	11
2	40대 독신녀	212(45.1)	15
3	동성친구와 사는 노파	175(37.2)	18
4	따로 사는 친조부모와 손자	415(87.9)	7
5	자녀없는 부부	459(97.7)	1
6	(두자녀+부부)와 (모+한자녀+부부)의 함께 살기	178(37.7)	17
7	딸을 둔 20대 동거커플	371(80.1)	10
8	주말에 방문하는 미혼고모와 부부	338(71.8)	12
9	10년간 별거하고 있는 부부	170(36.0)	19
10	30여년 함께 사는 미혼 세자매	424(90.2)	4
11	동거하는 대학생커플	155(32.9)	20
12	백부가족과 함께 사는 숙부가족	401(85.1)	8
13	친조부모와 함께 사는 손자	440(93.6)	2
14	가사도우미와 함께 사는 자녀 있는 부부	226(48.2)	14
15	입양한 딸과 독신남	436(93.2)	3
16	이전에 동거했던 남성, 그 아들과 현재 함께 사는 여성	184(39.3)	16
17	함께 사는 외조부모와 손자	397(85.7)	6
18	이혼한 부부	60(12.9)	22
19	자녀 있는 부부와 함께 사는 미혼고모	421(89.8)	5
20	아들 있는 부부와 함께 사는 절친한 아들 친구	118(25.2)	21
21	따로 사는 딸과 이혼한 부	382(82.2)	9
22	자녀 없는 30대 동거커플	297(63.7)	13

주1) 용어의 구분을 위해 '동거(법적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상태)'와 '함께 사는 것(거주를 같이 한 상태)'을 구별하여 사용함.

주2) N(%)은 '그렇다'의 응답한 비율 및 빈도를 나타냄.

가족은 가족이라고 인식하지만 함께 살지 않는 조부모를 가족으로서 인식하지 않는다는 Levin & Trost(1992)의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이지만, 자녀와 관계없이 핵가족을 가족으로 인식하며 함께 살지 않는 조부모도 가족으로 어느 정도 인식한다는 Ford(1994)의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확대가족의 구성원인 조부모를 외국보다 가족이라고 여기는 정도가 큼을 보여준다. 즉 우리 사회에서 확대가족의 구성원도 여전히 가족으로 여기는 점은 외면적인 형태로서는 대부분이 핵가족인 현 우리 사회의 실정을 감안해볼 때, 단순히 외형상의 가족 형태가 같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도 같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문항 15(입양한 딸과 독신 남)의 경우 혈연관계가 없는 부모자녀관계도 가족이라고 강하게 인식함을 보여주어 부모 지위를 갖는 것이 가족으로서의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가족이라는 인식에 가장 적게 동의한 경우는 이혼한 부부(문항 18)로 전체 응답자의 12.9%만이 가족이라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성립이 기본적으로는 결혼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 인정을 받았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법적 관계가 해소되면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생각이 반영된 결과이며, 이는 법에 근거하여 결혼이 성립하도록 한 사회에서는 마찬가지여서 Levin & Trost(1992), Ford(1994)의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이혼한 부부(문항 18)를 포함하여 가족이라는 인식이 비교적 적은 경우(전체의 40% 이하가 가족이라고 응답한 경우: 문항 20, 11, 9, 3, 6, 16)를 보면 가족이라는 개념에 혈연성이 크게 관계함을 보여준다. 즉 혈연관계가 있으면 가족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이라고 적게 인식하는 경향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결혼과 같은 법적 인정, 부모의 지위, 혈연성 등이 가족이라는 인식과 관련이 깊음을 볼 수 있다.

2. 청년과 중년의 가족개념 인식 차이

이러한 가족 개념에 대한 인식을 청년과 중년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청년이 가족이라는 개념을 중년보다 더 가진 경우는 재혼한 모와 따로 사는 딸(문항 1), 자녀 없는 부부(문항 5), 10년간 별거하고 있는 부부(문항 9), 친조부모와 함께 사는 손자(문항 13), 가사도우미와 함께 사는 자녀 있는 부부(문항 14), 입양한 딸과 독신남(문항 15), 함께 사는 외조부모와 손자(문항 17)의 경우이었고, 중년이 청년보다 더 가족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는 주말에 방문하는 미혼고모와 부부(문항 8)와 자녀 있는 부부와 함께 사는 미혼고모(문항 19)의 경우이었다. 이를 비교하여 보면 청년은 중년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구조를 가진 가족도 가족이라고 인식하는데 반해, 중년은 청년보다 가족의 범위를 좁게 인식한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청년은 재혼, 무자녀, 별거, 입양아, 모계친 등 비교적 최근에 변화한 가족 유형도 수용함을 보여주어 중년보다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김규원(1995)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였다. 특히 외조부모를 가족이라고 인식하는 정도는 청년과 중년의 차이가 커서 부계친과 모계친을 차별하였던 이전과는 달리 부계친과 모계친의 차별이 적어진 최근의 양상을 그대로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발견되는 특이한 점은 함께 사는 조부모를 가족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청년이 중년보다 높게 나왔다는 사실이다. 따로 사는 조부모와 손자(문항 4)보다 친조부모와 함께 사는 손자(문항 13)를 더 가족이라고 여기는 경향은 두 세대에 있어서 동일하지만, 청년은 중년보다 함께 사는 조부모를 더 가족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내주어 청년은 현재 동거한다는 사실을 우선시하며 반면 중년은 동거보다는 부계혈연을 더 우선시한 결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하여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요망된다.

성에 따라서도 가족 개념에 대한 인식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표 3 참조).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40대 독신녀(문항 2)와 따로 사는 딸과 이혼한 부(문

<표 2> 청년과 중년의 가족개념 인식비교

N(%)

문항	세 대			χ ²
	청년	중년		
1 재혼모와 따로 사는 딸	205(86.9)	150(63.6)		35.45**
2 40대 독신녀	105(44.5)	107(45.7)		.07
3 동성친구와 사는 노파	89(37.7)	86(36.8)		.04
4 따로 사는 친조부모와 손자	212(89.8)	203(86.0)		1.62
5 자녀없는 부부	233(99.1)	226(96.2)		4.92*
6 (두자녀+부부)와 (모+한자녀+부부)의 함께 살기	88(37.3)	90(38.1)		.03
7 딸을 둔 20대 동거커플	187(79.9)	184(80.3)		.01
8 주말에 방문하는 미혼고모와 부부	155(66.0)	183(77.5)		7.83**
9 10년간 별거하고 있는 부부	97(41.1)	73(30.9)		5.30*
10 30여년 함께 사는 미혼 세자매	214(91.5)	210(89.0)		.81
11 동거하는 대학생커플	78(33.2)	77(32.6)		.01
12 백부가족과 함께 사는 숙부가족	204(86.8)	197(83.5)		1.03
13 친조부모와 함께 사는 손자	225(96.2)	215(91.1)		5.15*
14 가사도우미와 함께 사는 자녀 있는 부부	124(53.2)	102(43.2)		4.70*
15 입양한 딸과 독신남	224(96.1)	212(90.2)		6.05**
16 이전에 동거했던 남성, 그 아들과 현재 함께 사는 여성	88(37.6)	96(41.0)		.57
17 함께 사는 외조부모와 손자	215(92.3)	182(79.1)		16.87***
18 이혼한 부부	32(13.8)	28(12.0)		.34
19 자녀 있는 부부와 함께 사는 미혼고모	202(86.7)	219(92.8)		4.81*
20 아들 있는 부부와 함께 사는 절친한 아들 친구	63(27.0)	55(23.3)		.86
21 따로 사는 딸과 이혼한 부	178(85.3)	184(79.0)		3.23
22 자녀 없는 30대 동거커플	141(60.8)	156(66.7)		1.75

*p<0.05 **p<0.01 ***p<0.001

주) N(%)은 '그렇다'의 응답한 비율 및 빈도를 나타냄.

항 21)를 가족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고, (두 자녀+부부)와 (모+한자녀+부부)의 함께 살기(문항 6)와 가사도우미와 함께 사는 자녀 있는 부부(문항 14)를 가족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남성과 여성의 가치관의 차이를 엿볼 수 있으나 이러한 차이가 세대별 차이보다 크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성별 차이를 세대별로 나누어 보면 성별 차이를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청년은 모든 항목에서 성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중년은 위의 4문항(2, 21, 6, 14)외에도 함께 사는 미혼 세자매(문항 10)를 가족이라고 인식하고, 이혼한 부부(문항 18)를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가족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나타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바로 중년이 가지고 있는 차이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성에

따른 가족개념에 대한 인식 차이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청년과는 달리 중년에는 남녀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사실은 청년세대의 남성과 여성의 가치관의 차이보다 중년세대의 남성과 여성의 가치관 차이가 더 뚜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중년 여성은 독신녀, 이혼한 경우와 같이 현대 사회의 변화 중 여성에게 일어난 유형을 남성보다 더 가족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Ford(1994)의 설명과 같이 아마도 중년여성들의 현 상황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3. 가족개념 인식의 관련요인

1) 혈연성

가족원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기술하라는 질문에

〈표 3〉 성별 가족개념 인식비교

N(%)

문항	남	여	χ^2	청년			중년		
				남	여	χ^2	남	여	χ^2
1	18(72.4)	174(78.4)	2.26	108(86.4)	97(87.4)	.05	73(58.4)	77(69.4)	3.07
2	96(38.4)	116(52.7)	9.72***	49(39.2)	56(50.5)	3.01	47(37.6)	60(55.0)	7.16**
3	86(34.4)	89(40.5)	1.83	42(33.6)	47(42.3)	1.91	44(35.2)	42(38.5)	.27
4	218(87.2)	197(88.7)	.26	115(92.0)	97(87.4)	1.36	103(82.4)	100(90.1)	2.95
5	240(96.8)	219(98.6)	1.88	122(98.4)	111(100.0)	2.57	118(95.2)	108(97.3)	.74
6	105(42.0)	73(32.9)	4.17*	50(40.0)	38(34.2)	.83	55(44.0)	35(31.5)	3.89*
7	198(80.5)	173(79.7)	.04	98(79.0)	89(80.9)	.12	100(82.0)	84(78.5)	.43
8	175(70.3)	163(73.4)	.57	83(66.9)	72(64.9)	.11	92(73.6)	91(82.0)	2.39
9	95(38.0)	75(33.8)	.90	56(44.8)	41(36.9)	1.50	39(31.2)	34(30.6)	.00
10	230(92.4)	194(87.8)	2.78	113(91.1)	101(91.8)	.03	117(93.6)	93(83.8)	5.86*
11	78(31.2)	77(34.8)	.70	41(32.8)	37(33.6)	.01	37(29.6)	40(36.0)	1.10
12	298(87.2)	197(88.7)	.25	115(92.0)	97(87.4)	1.36	103(82.4)	100(90.1)	2.95
13	234(94.0)	206(93.2)	.11	120(96.8)	105(95.5)	.27	114(91.2)	101(91.0)	.00
14	133(53.4)	93(42.3)	5.82*	68(54.8)	56(51.4)	.27	65(52.0)	37(33.3)	8.42**
15	232(93.2)	204(93.2)	.00	119(96.0)	105(96.3)	.02	113(90.4)	99(90.0)	.01
16	107(43.0)	77(35.2)	2.98	49(39.5)	39(35.5)	.41	58(46.4)	38(34.9)	3.21
17	216(86.7)	181(84.7)	.44	114(91.9)	101(92.7)	.04	102(81.6)	80(76.2)	1.00
18	30(12.1)	30(13.8)	.28	20(16.3)	12(11.0)	1.35	10(8.0)	18(16.5)	4.02*
19	222(88.8)	200(90.9)	.59	104(83.9)	98(89.9)	1.86	117(93.6)	102(91.9)	.25
20	72(29.0)	45(20.7)	3.01	40(32.3)	23(21.1)	3.70	35(28.0)	20(18.0)	3.31
21	190(76.6)	192(88.5)	11.43***	101(82.1)	97(89.0)	2.22	89(71.2)	95(88.0)	10.18***
22	158(63.5)	139(64.1)	.01	73(58.9)	68(63.0)	.40	85(68.0)	71(65.1)	.21

*p<0.05 **p<0.01 ***p<0.001

주) N(%)은 '그렇다'의 응답한 비율 및 빈도를 나타냄.

대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표현이 혈연성에 관한 서술이었다. 이러한 서술은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비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도 가족원이라고 간주한다는 응답 둘로 나뉘는데 이들 모두 가족원의 범위를 정할 때 혈연성을 고려해본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응답은 총 80회로 최다수 나타났다.

"나와 같은 피를 나누어 가진 모든 사람들이 가족입니다"(41세 남성).

"부모님, 형제 자매 그밖에 친척, 사촌 등 혈연관계로 맺어진 모든 사람들이 가족입니다"(19세 남성).

혈연인 사람은 누구나 가족원이라는 대답은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가족이 혈연에 근거하여 성립되었으므로 당연한 결과로 생각된다. 그런데 혈연이 아

나라도 가족원으로 간주한다는 응답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특별히 핏줄과는 상관없이 한 가족의 성원이 될 자격을 갖출 때 다 가족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18세 여성).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만을 가족원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근시안적인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외국엔 수많은 어린이들을 입양하여 혈연만이 아닌 가족원을 구성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21세 여성).

혈연이 아니면서 가족원으로 간주되는 사람들 중 입양이나 결혼 등 법적 인정 받은 사람뿐 아니라 소중하게 여겨지는 대상도 가족이라고 간주한다는 사실은 전통적인 생각에서 벗어난 사고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응답도 다수 있었다.

"혈연관계로 맺어지지 않는 않지만 그 소중함이 가

족과 같을 때 그 사람들도 가족이라 생각합니다”(19세 여성).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살면 혈연적으로 맺은 관계가 아니라도 가족원이라고 생각합니다”(19세 여성).

가족 개념을 파악하는데 있어 혈연성을 중요시하는 것이 주관식 질문의 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객관식 질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가사도우미와 함께 사는 자녀 있는 부부(문항 14) 및 아들 있는 부부와 함께 사는 절친한 아들 친구(문항 20)를 자녀 있는 부부와 함께 사는 미혼고모(문항 19)와 비교할 때, 함께 사는 미혼 세자매(문항 10) 및 백부가족과 함께 사는 숙부가족(문항 12)을 동성친구와 사는 노파(문항 3)와 비교할 때, 백부가족과 함께 사는 숙부가족(문항 12)을 (두자녀+부부)와 (모+한자녀+부부)의 함께 살기(문항 6)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가족의 개념에 혈연성이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다. 이 결과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보다 혈연관계가 있는 경우를 가족이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월등히 높았다(표 4).

그런데 혈연성을 중시하는 것이 청년과 중년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났다면지라도 그들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중년은 청년보다 혈연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지만 그것이 비전통적인 유형이 아닌 경우에만 그러함을 볼 수 있다. 즉 미혼고모가 포함된 구조는 가족으로 여기는 경향이 청년보다 더 강하면서 미혼자매로 이루어진 구조나 동성친구와 사는 노파를 가족으로 인식하는 경향에 있어서는 강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살아온 시대의 영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년은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족 구조로 살아왔는데, 미혼자매나 친구로 구성된 가족은 혈연이라 하더라도 전통적인 가족유형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와 같이 혈연성을 중요시하는 성향이 어느 범위까지인지를 확인해보기 위하여, 부모와 자녀를 전통적인 개념으로서의 가족의 기본 구성원이라고 보고 이러한 구성원 이외 포함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보았다.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족원이라는 응답 중 구체적으로 자신과의 관계를 언급하여 혈연관계의 범위를 정한 응답도 다수(33회) 나타나고 있다. 이에겐 핵가족만을 가족이라고 보는 사례도 있지만 핵가족의 범위를 넘어선 친족이나 인척까지로 확대하는 사례도 다수 볼 수 있다.

“부모님과 자신(형제가 없는 경우)은 가족에 포함되지만 사촌이나 친척들은 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9세 남성).

“크게 위로는 조상들을 위시하여 큰아버지 댁, 작은아버지 댁, 고모 댁, 형님, 나, 동생, 누나, 아들, 딸, 조카, 손자, 작게는 나와 부인, 아들, 딸을 가족원으로 봅니다”(49세 남성).

먼저 핵가족 구성원 이외 구성원으로 누구를 가족원으로 포함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해 살펴본 결과 대다수가 조부모를 가족으로 인식하였다. 그런데 조부모 중에서 친조부모와 함께 사는 손자(96.2%)를 함께 사는 외조부모와 손자(92.3%)보다 더 가족으로 인식함을 나타내어 부계친 가족을 모계친보다

<표 4> 청년과 중년의 혈연성에 따른 가족개념 인식 차이

M(SD)

문항		청년			중년		
유혈연	무혈연	유혈연	무혈연	t	유혈연	무혈연	t
19	14	.86 (.34)	.53 (.49)	9.49***	.92 (.25)	.43 (.49)	14.94***
19	20	.86 (.34)	.27 (.44)	17.06***	.92 (.25)	.23 (.42)	21.12***
10	3	.91 (.28)	.38 (.48)	15.81***	.89 (.30)	.36 (.48)	14.97***
12	3	.86 (.33)	.37 (.48)	13.64***	.83 (.37)	.36 (.48)	13.57***
12	6	.86 (.33)	.37 (.48)	13.88***	.83 (.37)	.38 (.48)	11.75***

***p < 0.001

주) M(SD)은 '그렇다'의 응답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나타냄.

더 가족으로 여김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부계친과 모계친을 구별하는 경향은 청년(96.2%, 92.3%)과 중년(91.1%, 79.1%) 모두에게서 나타났으나 중년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표 2 참조). 다시 말하면 가족원의 범위를 인식할 때 청년은 모계친과 부계친을 구별하지 않지만 중년은 부계친을 모계친보다 가족으로 더 인식함을 보여주었다.

2) 공동거주

주관적인 응답을 분석한 결과 혈연관계에 관한 서술 외에 공동거주 여부에 관한 서술이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공동거주와 관련한 응답에서는 함께 사는 사람을 가족원이라고 여긴다는 서술이 대부분이지만 함께 살지 않아도 가족이라고 여긴다는 응답도 극소수 나타났는데 이러한 응답도 공동거주를 가족의 기준으로 고려해본다는 의미로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공동거주에 관한 서술은 총 32회로 나타나서 공동거주 여부를 가족원의 범위를 정하는데 혈연성 다음으로 중요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함께 사는 것을 가족원의 기준으로 강조하는 사람은 사람 외에 동물까지도 가족원으로 여긴다는 응답을 하여 최근에 애완용 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세태를 반영함을 볼 수 있었다.

"현재 함께 살고있는 사람들이 가족원이다. 따라서 조부모와 현재 함께 살 경우 가족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원의 정의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55세 남성).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 가족에서 함께 생활한다면 누구나 가족원이 될 수 있습니다"(23 세 남성).

"동거의 여부나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사느냐의 여

부도 가족개념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지나치게 오래 떨어져 사는 것은 가족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혈연이 동거여 부모다는 더욱 우선시되는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26세 남성).

가족의 개념을 공동거주 여부와 관련지어 생각할 때 거주지에서 함께 사는지 또는 따로 사는지에 따라 가족에 포함시키는 비율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친조부모와 함께 사는 손자를 따로 사는 조부모와 손자와, 자녀 있는 부부와 함께 사는 미혼고모를 주말에 방문하는 미혼고모와 부부와, 자녀 없는 부부를 10년간 별거하고있는 부부와 각각 비교해보면 공동거주하는 경우를 주거를 달리 한 경우보다 가족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공동거주는 가족이라고 인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가족이라는 인식에 공동거주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청년과 중년 유사하지만 이러한 경향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친조부모와 함께 사는 손자를 따로 사는 조부모와 손자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중년은 친조부모와 함께 사는 손자와 따로 사는 조부모와 손자를 가족으로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조부모와의 공동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가족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어 함께 사는 조부모를 더 가족으로 인식한다는 청년세대와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또한 자녀 있는 부부와 함께 사는 미혼고모를 주말에 방문하는 미혼고모와 비교해 살펴보면 중년은 자녀 있는 부부와 함께 사는 미혼고모를 주말에 방문하는 미혼고모와 부부보다 가족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더 높기는 하지만 이 차이를 비교해볼 때 청년보다 그 차이가 적은 것을 볼 때,

<표 5> 청년과 중년의 공동거주에 따른 가족개념 인식 차이

M(SD)

문항		청년			중년		
공동거주	비동거	공동거주	비동거	t	공동거주	비동거	t
13	4	.96 (.19)	.89 (.30)	3.18**	.91 (.28)	.86 (.34)	1.77
19	8	.86 (.34)	.66 (.47)	6.41***	.92 (.25)	.77 (.41)	5.51***
5	9	.99 (.09)	.40 (.49)	17.48***	.96 (.19)	.31 (.46)	20.89***

p < 0.01 *p < 0.001

주) M(SD)은 '그렇다'의 응답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나타냄.

함께 살 때 가족이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청년이 더 강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혈연을 더 중시하는 중년의 가족이라는 개념에는 함께 사는 것이 청년에서보다 영향을 적게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녀 없는 부부와 10년간 별거하고있는 부부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중년이 청년보다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청년은 별거가 이전보다 많아진 시대에 살아서 중년보다 별거를 더 가족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청년 중년 모두 공동거주를 중시하지만 혈연성 등 공동거주보다 더 중시하는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거주에 의한 차이가 적게 나타나는 것이다.

3) 결혼지위

결혼지위가 가족원으로 인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은 가족인지 또는 결혼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가능하다.

먼저 이혼한 부부(문항 18)를 가족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전체 문항 중 가장 낮아(12.9%)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결혼관계에 있는 남녀를 가족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에 자녀 없는 부부와 자녀 없는 동거커플을 비교해보면 법으로 인정받은 결혼한 부부를 법적 인정을 받지 않은 동거커플보다 가족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음을 볼 수 있다. 이로써 법적인 결혼 지위를 얻은 경우 가족으로서 더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동거자보다 법적 결혼한 지위를 가진 부부가 더 가족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Ford(1994)의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이 결과는 결혼의 성립이 법적 혼인신고에 의해 이루어지

는 우리 사회의 원칙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인식을 세대별로 비교해보면 청년과 중년 모두 법적 인정을 받은 부부를 가족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은 같아 청년과 중년 모두 법적인 인정여부를 중요하게 여김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주관적인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가족원에 대해 주관적으로 기술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법적 인정을 받은 결혼지위에 대해 세 번째로 많은 응답(31회)을 하여 같은 경향을 볼 수 있었다.

"가족이라고 법적으로 인정된 사람들이 가족원에 포함된다"(46세 여성).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부부를 포함하는 것이 가족원이다"(22세 여성).

다음에 가족 개념이 결혼 경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혼인 경우와 미혼인 경우로 구분하여 비교해본 결과, 독신녀보다 자녀없는 부부를 가족으로 인식한다는 응답이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미혼으로 생활하는 경우는 가족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전체의 반절이하였으나 결혼한 부부는 거의 모든 사람이 가족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자는 제사, 재산상속, 호칭 등에서 기혼자와 차별하였던 전통적 관습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기혼자를 미혼자보다 가족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은 청년과 중년의 차이가 없이 동일하였다. 그러나 청년세대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없으나, 중년에는 남녀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중년남성보다 중년여성은 독신녀를 가족이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다(표 3 참조). 이는 위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독신녀가 여성에게 일

<표 6> 청년과 중년의 결혼지위에 따른 가족개념 인식 차이

M(SD)

문항		청년			중년		
유	무	유	무	t	유	무	t
5	22	.99 (.09)	.61 (.48)	11.68***	.96 (.19)	.66 (.47)	9.88***
5	2	.99 (.09)	.44 (.49)	16.45***	.96 (.19)	.45 (.49)	15.04***

***p < 0.001

주) M(SD)은 '그렇다'의 응답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나타냄.

어난 상황이므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가족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4) 부모지위

가족의 개념을 부모라는 지위와 관련하여 생각할 때 자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딸을 둔 동거커플과 자녀없는 동거커플을 비교해 볼 때 딸을 둔 동거커플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자녀없는 동거커플보다 높으며, 자녀가 있는 독신남을 자녀가 없는 독신녀보다 더 가족으로 인식하는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녀유무에 따라 가족성원 기준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Levin & Trost(1992), Ford(1994)의 연구에서 동거남녀 모두 자녀가 있을 때가 없을 때보다 더 가족으로 인식되는 경향을 밝힌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경향은 청년과 중년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주관적인 조사에서도 자녀의 존재가 가족의 성립의 중요 요인임을 다수가 서술하여 동일한 경향을 볼 수 있었다.

"부자간 또는 모자간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가족이다"(51세 남성).

"가족은 부모와 자식이 함께 이루는 자신의 근본이다"(21세 여성).

그러나 부모지위는 '결혼한 자녀없는 부부'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것이 97.7%로 나타난 것(표 1참조)을 고려해볼 때 법적 결혼지위를 가진 부부에서 보다는 동거커플 및 독신남녀에서 중요한 가족기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가족개념 인식을 가족구조적 측면에서 고찰해보고, 가족개념 인식의 관련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 오늘날 가족개념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가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양적, 질적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조사된 항목 가운데 가족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던 것은 '자녀 없는 부부'이었으며, 반면 가족인식도가 가장 낮았던 항목은 '이혼한 부부'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개념 인식에 관련되는 요인으로 혈연성, 공동거주, 부모지위, 결혼지위 가 높게 관련되고 있어 여전히 전통적 관점에서 가족개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그러나 청년과 중년의 가족개념 인식의 비교결과, 중년 세대는 청년 세대에 비해 가족의 범위를 혈연성이나 부계친에 국한해서 인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청년 세대는 무자녀, 비혈연, 별거, 입양아, 모계친 등 비교적 최근에 변화한 가족유형을 수용하는 정도가 중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우리 사회에서도 가족개념에 대한 인식이 고정화된 전통적 가족개념에서 점차 다양화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결론 및 제언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 대다수는 여전히 혈연성과 공동거주 여부를 가족과 밀접하게 관련지어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가족 개념은 이전에 가족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범위까지도 가족이라

〈표 7〉 청년과 중년의 부모지위에 따른 가족개념 인식 차이

문항		청년			중년			M(SD)
유자녀	무자녀	유자녀	무자녀	t	유자녀	무자녀	t	
15	2	.96 (.19)	.45 (.49)	15.05***	.90 (.29)	.45 (.49)	11.78***	
7	22	.79 (.40)	.60 (.49)	5.78***	.80 (.39)	.67 (.47)	3.47***	

***p < 0.001

주) M(SD)은 '그렇다'의 응답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나타냄.

고 인식할 정도로 그 폭이 넓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는 물론이고 앞으로의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생각하면 전통적인 가족 구조에 기준을 둔 개념은 교육을 통해서 그 범위를 넓혀야만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가족구조를 가진 사람들의 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난 가족 개념의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개념 인식에 세대별, 성별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각자의 경험에 따라 다른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고 이러한 가치관이 가족 개념에도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년과 청년, 남성과 여성의 가족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그들간에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에 대한 인식 차이가 무엇 때문인지를 밝히는 연구가 수반되어 이에 근거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갈등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존의 가족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유형의 여러 가족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가족에게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준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소수(80명 대상에서 7회 응답)이긴 하지만 주관적인 질문의 답에서 가족원의 기준을 혈연성, 공동거주, 결혼지위, 부모지위와는 다른 차원에서 가족원의 기준을 정하는 사례도 나타났다(예: 상호작용, 사랑, 공유하는 삶 등). 이것은 가족을 가족원의 범위만으로 정의하는 가족구조적 관점은 현대의 모든 가족을 포괄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추후 이러한 과업지향적 관점과 교류과정적 관점에서 가족개념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가족관련강좌를 수강한 대학생(청년)과 일부지역민(중년)이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적용할 때에는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의 가족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됨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가족 개념이 어떠한 지를 밝힌 본 연구 결과는 미래 사회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미래 가족에서 나타날 가족유형을 포함하여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규원(1995). 가족개념의 인식과 가치관. *가족학논집*, 7, 213-255.
- 박경란, 이영숙, 전귀연(2001). *현대가족학*. 서울: 학지사.
- 양옥경(2000). 한국 가족개념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 69-99.
- 양옥경(2000). 한국가족개념의 변화: 신가족주의의 모색. 21C 가족의 변화와 사회복지적 과제.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제7회 학술대회*, 9-31.
- 양옥경(2001). 가족개념에 대한 대학생의 의식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7, 175-199.
- 유영주(1993) *한국가족의 기능연구: 대내적 기능을 중심으로*. 서울: 교문사.
- 이동원, 함인회(1992). 도시 중산층 가족: 가족과 계층의 연결고리를 중심으로. *가족학논집*, 4, 135-156.
- 이은경(1999). 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노후의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 45-65.
- 장현섭(1995). 이혼경향에 대한 또 하나의 해석을 위하여. *한국가족학회 편. 한국가족문제 진단과 전망*, 27-93. 서울: 하우.
- 조미숙, 오선주(1999).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관계 변인과 청소년의 가족가치관.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67-89.
- 최재석(1990). *한국가족제도*. 서울: 일지사.
- Cherlin, A. J. & Calhoun, C. (1999). *Public and Private Families: An Introduction*. (2nd ed.). Boston: McGraw-Hill College.
- Elliot, F.R. (1986) 지음. 안병철 · 서동인 옮김. *가족사회학*. 서울: 을유문화사.
- Fine, M. A. (1993). Current approaches to understanding family diversity: An Overview of the special issue. *Family Relations*, 42, 235-237.

- Fitzpatrick, M.A. & Badzinsik, D.M. (1994). All in the family: Interpersonal communication in kin relationships. In Knapp, M.L., & Miller, G.R. *Handbook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2nd ed.).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726-771.
- Flexman, R., Berke, D.L., Settles, B.H. (1999). Negotiating family: The interface between family and support groups. *Marriage and Family Review*, 28(3/4), 173-190.
- Ford, D.Y. (1994). An exploration of perceptions of alternative family structures among university students. *Family Relations*, 43, 68-73.
- Gubrium, J. F. & Holstein, J. A. (1990). *What is family?* Mountain View, CA: Mayfield.
- Levin, I. (1999). What phenomenon is family? *Marriage & Family Review*, 28-3/4, 93-104.
- Levin, I. and Trost, J. (1992).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family. *Family Relations*, 41, 348-351.
- Peters, J. F. (1999). Redefining western families. *Marriage & Family Review*, 28(3/4), 55-66.
- Powell, J.A., Wiltcher, B.J., Wedemeyer, N.V., & Claypool, P.L. (1981). The young child's developing concept of family.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2), 137-149.
- Shehan, C. L. & Kammeyer, K. C. W. (1997). *Marriages and Families: Reflections of a Gendered Society*. Boston: Allyn and Bacon.
- Steinmetz, S. K., Clavan, S., & Stein, K. F. (1990). *Marriage and Family Realities: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erspectives*.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 Trost, J. (1999). Family as a set of dyads. *Marriage and Family Review*, 28(3/4), 79-91.